

농가안정 월급제 운영 확대

무주군, 무주농협·구천동농협과 농가 월급 지급 위한 업무협약 체결

무주군이 농업인 월급 규모와 대상, 품목 등을 확대했다. 이는 민선 8기 군수 공약(농업인 월급제 확대 지원) 실현이라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황인홍 군수는 오는 2026년까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매년 3백 농가에 월 20~250만 원을 지급하기로 공약한 바 있다.

무주군은 올해 농가 월급 지급을 위해 29일 무주농협(조합장 박동열)·구천동농협(조합장 김성곤)과 업무협약을 맺고 △농업인 월급제 적용 범위와 △단기(2022년도 농협자체 수매 기준 금액의 60%), △시행기간, △지급액 한도(상한액 250만 원 2천5백만 원 이상 출하 약정 농가 / 하한액 20만 원 200만 원 이상 출하 약정 농가), △이자보전 이율, △대형 수수로 등에 합의했다.

올해 월급제 대상은 230농가(농협과 출하약정 체결 농가)로 지난해보다 26농가가 증가했으며 품목도 사과와 포도, 복숭아, 천마, 고추, 벼, 블루베리, 딸기, 토마토, 오미자, 아로니아, 화훼 등 12개에 대해 추후 등을 추가해 20개로 확대했다.

농업인 월급도 10% 인상했다. 농협은 4월부터 9월까지 매월 5일 약정금



무주군은 올해 농가 월급 지급을 위해 29일 무주농협(조합장 박동열)·구천동농협(조합장 김성곤)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액의 60% 범위 내의 금액(20~250만 원)을 농업인들에게 지급하고 무주군에서는 그에 대한 이자(5%)와 대형수수로(0.55%)를 지원할 예정이다.

황인홍 군수는 "올해 6개 읍면 230농가에서 신청한 월급은 23억3천2백만 원으로 농가별 월 평균 지급액은 170여만 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월급제가 농가안정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나아가 청년농, 귀농인들이 불러 모으는 유인책이 될 수 있다

록 농협과 협력해 월급제 운영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가소득이 수확기에 편중되면서 농가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산물 출하약정 금액의 일정 부분을 비수확기에 지급해주는 것으로, 무주군에 따르면 2018년도부터 4년간 농업인 월급 신청 금액은 연 평균 16억여 원, 월 평균 지급 금액은 139만 5천 원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화상병 사전방제 총력

예방 위해 과수농가에 약제 농약티켓 발급·일제 방제 독려

장수군이 사과·배에 자주 발생하는 화상병을 예방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군은 화상병 예방을 위한 사전 방제 약제 농약티켓을 이달 중순 농가에 모두 공급하고, 관내 과수농가를 대상으로 일제 방제를 독려했다. 이번에 지원된 농약티켓은 개화 전 방제 1회, 개화기 방제 2회, 총 3회 방제분으로, 819농가 총 893ha의 면적을 방제할 수 있는 분량이다.

꽃이 피기 전 방제 적기는 사과의 경우 녹색기~전엽기, 배의 경우 꽃눈 발아 직후로, 농촌진흥청 사과연구소에서 불철 기상자료를 바탕으로 개화기 예측모델을 통해 분석한 결과 장수군은 '후지' 꽃이 활짝 피는 시기(만개기)가 4월 12~13일로 지난해보다 약 10일 이상 빠를 것으로 예측된다.

꽃피는 시기가 빨라지면 가온변동에 따른 저온피해와 과수 화상병 발생 위

험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군은 2022년도에 완료한 '화상병 예측시스템'을 통해 개화기 약제 처리 시기를 농가에 알려 개화기 방제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군은 농가를 대상으로 화상병 방제 관련 영농정보 등을 제공하고 올바른 약제 사용법 등 지속적인 현장지도와 마을별 공동방제, 약제방제 확인서를 배부 등을 통해 방제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김현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철저한 현장지도와 약제 지원 등을 통해 화상병 사전예방에 총력 대응하겠다"며 "과수농가에서도 개화 전 약제 살포와 개화기 약제 살포로 화상병 유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화상병 의심 증상이 발생한 농가는 기술지원과 과수지도팀(063-350-2851)으로 신고하면 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 과수 저온피해 대응 철저

무주군이 과수 개화기가 빨라질 것으로 예측되면서 저온피해 대응에 나섰다.

무주군에 따르면 농촌진흥청 사과연구소에서 개화기 예측모델을 통해 분석한 결과 '후지' 만개기는 무주지역의 경우 4월 12~13일로 예측했다. 해발고도가 높은 무풍, 안성면 지역은 4~5일 정도 늦어질 수 있다.

이에 늦서리 피해를 받으면 안정적인 수량 확보와 착과가 어려우며 다음연도 과수 생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

늦서리 피해 기상조건은 바람이 없고 맑으며, 야간에 기온이 영하 이하로 떨어지는 날이다. 오후 6시 기온이 10°C이면서 맑고 바람이 없을 때는 서리가 내릴 확률이 높아 관심을 갖고 신속히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화기의 피해 한계온도는 사과 -1.7

°C, 복숭아 -1.1°C로 기온이 이보다 높아도 지속시간이 길면 피해를 입게 된다. 앞서 군은 저온피해에 대응하고자 사과, 복숭아 농가를 대상으로 방상팬 20기, 미온수 시설 3ha, 미세살수 시설 2ha를 시범 보급했다.

열풍 방상팬은 360도 팬이 회전하면서 상부의 따뜻한 공기를 아래로 송풍하고 온도를 자동감지 가동되면서 저온 피해를 예방 할 수 있다. 미온수 관수시설은 보일러로 30°C 정도 물을 가열해 살수하는 방식으로 과수원 온도를 상승시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하지만 물이 부족해 중간에 멈추면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살수할 양이 충분한지 확인하고 해가 뜨기 전 중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라 고 각 농가에 당부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품목 농업인 연구회 운영방향 설명회 가져

무주군이 품목 농업인 연구회 활성화로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품목 농업인 연구회는 농작물 품목별로 군 단위의 읍·면 단위별 연구회를 결성해 정보를 함께 공유하고 농촌지도·연구사와 매칭됨으로써 품목별 지도를 통한 지도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한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는 29일 농업기

술센터 세미나실에서 50여명의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연구회 운영방향 설명회를 열고 농업과 관련된 정보를 교환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연구회 가입 조건, 연간 활동 방법, 운영 과정에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매칭 공무원들이 전문 지식과 가운데 연구회 대표들과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 통

진안고원물 지역 협업 마케팅 사업 추진

진안군은 29일 직영 온라인쇼핑몰 '진안고원물'의 지역 협업 마케팅 사업 추진을 위한 대상자를 선정하고 연말까지 진안고원물 관련 2개 사업을 전담할 업체와의 협약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군은 진안고원물 홍보 및 마케팅 사업을 지역업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업체의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입점 농업인 및 가공업체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입점성 있고 환류 가능한 협업 마케팅 체계 구축에 힘쓰기 위해 이번 사업 추진을 기획했다.

해당 사업은 진안고원물 라이브커머스 제작, 진행, 송출 관련 사업 전담업체 1개소와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미디어를 통한 영상, 스토리, 카드뉴스 등 진안고원물 입점농가의 생산한 생산현장과 진안고원물의 우수한 상품 홍보를 전담할 업체 1개소까지 2개 업체가 각각의 분야를 전담하여 추진될 예정이다.

이날 협약에 따라 라이브커머스 제작 및 진행사업 1개 업체(아리홀딩스), 온라인미디어 마케팅 사업 1개 업체(마이스토리)는 다음 달 초부터 진안고원물 입점농가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각 업체별 사업계획을 기반으로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 계획을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마을축제 '찾아가는 마을축제' 시작

진안군마을축제조직위원회가 주최·주관하는 '찾아가는 마을축제' 행사가 29일 백운면 무등마을에서 그 시작을 알렸다.

이번 축제는 내달 12일까지 안천, 백운, 주천면 등 3개면, 18개 마을에서 진행된다.

이 사업을 통해 마을만들기사업에서 소외된 주민들도 축제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되고 있어 반응이 좋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봄철을 맞아 생화로 꽃바구니를 만들고, 바로 눈앞에서 마술공연도 진행돼 짧은 시간이지만 주민들이 한곳에 모여 행복한 웃음을 지을 수 있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 마이산 벚꽃 개화현황 집에서 확인하세요”

개화 실시간 조회 시스템 구축

4월 벚꽃 명소인 진안 마이산의 벚꽃 개화현황을 이제는 집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군은 진안 마이산 벚꽃 성수기를 맞아 실시간으로 벚꽃의 개화 상황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진안군 공식 홈페이지와 마이산도립공원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벚꽃 개화현황을 송출해 어느 곳에서나 조회가 가능하다.

진안 마이산은 해발 500m의 고원에 위치해 인근 지역인 전주시보다 평균 기온이 3~5°C 낮아 전국에서 가장 늦게 개화하는 벚꽃으로 유명하다.

마이산 남부의 초입부터 2.5km를 잇는 환상적인 벚꽃길은 매년 관광객들이 봄바는 벚꽃 명소로 유명하다.

이로 인해 남작사 사랑할 때 등 인기 드라마 촬영지로도 많은 사랑을 받기도 했다.



특히 마이산도립공원에는 이산묘에서 남부 관광안내소를 있는 400m 구간엔 생태 탐방로가 조성돼 파고라, 쉼터, 어린이를 위한 트리하우스 등의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가족 및 연인들이 돌탑을 직접 쌓으며 소원을 빌 수 있는 돌탑 쌓기 체험과 탐방지에서 즐길 수 있는 오리배 탑승 등 즐길거리도 마련돼 있다.

특히 벚꽃이 만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4월 8일에는 마이산북부에서 전국노래자랑 진안군권 녹화도 예정돼 있어 화려한 볼거리도 함께 즐길 수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일반음식점 영업자 대상 식품위생 교육 진행

무주군이 29일 관내 일반음식점 영업자를 대상으로 식품위생 교육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깨끗하고 맛있는 먹거리, 친절한 서비스 실현에 주안점을 둔 이번 교육은 한국외식업중앙회 전북교육원이 주관하고 한국외식업중앙회 무주군지부가 주최한 가운데 무주군민의 집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는 김제시보건소 박래만 전 소장이 식품위생법과 정책방향, 식중독 예방관리 및 영업자 준수사항, 친절서비스 관련 내용을 강의했으며, 노무법인 이상 노무사의 신용순 노무사가 외식업 노무관리에 대해, 그리고 한국외식업중앙회 전북교육원 정창훈 부원장이 외식업 세무관리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